



#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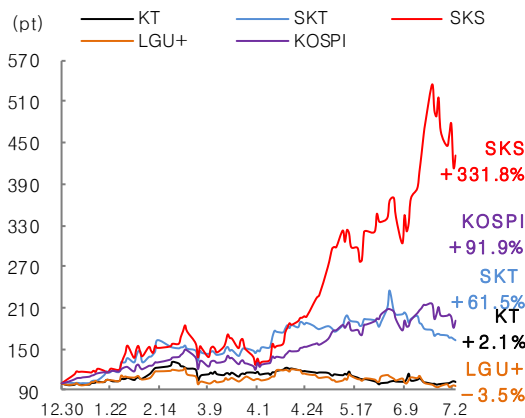
## 1. 주가 현황

기업	25/12/30	06/26	07/03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90,600	86,400	▲ 32,900	▲ 61.5%	▼ 4,200	▼ 4.6%	3,320	3.8	
SK스퀘어 (402340)	368,000	1,720,000	1,589,000	▲ 1,221,000	▲ 331.8%	▼ 131,000	▼ 7.6%			
KT (030200)	52,600	52,200	53,700	▲ 1,100	▲ 2.1%	▲ 1,500	▲ 2.9%	2,500	4.7	
LGU+ (032640)	14,720	14,220	14,200	▼ 520	▼ 3.5%	▼ 20	▼ 0.1%	700	4.9	
KOSPI	4,214.2	8,411.2	8,088.3	▲ 3,874.2	▲ 91.9%	▼ 322.9	▼ 3.8%			

-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주도주는 아니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주인공
  - 통신 주간 -1.4%, KOSPI -3.8%. YTD 통신 +22.4%, 지수 +91.9%. 리밸런싱, 차익실현, FOMO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지수의 급등락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방어 역할로서의 통신의 중요성 부각. 2Q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이 단순 방어 이상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
  - SKT가 AIDC 중장기 15GW 계획 발표. 우선 29년부터 5GW를 단계적으로 오픈할 계획. 1단계 5GW는 누적 350억원의 투자비와 GPU 300만장 소요 계획 발표. 기존 DC는 Colocation 위주이나, 신규 AIDC는 GPUaaS 등 고부가 매출 창출 가능. 100MW 기준 기존 BM은 3천억원 수준이나, AIDC는 2조원 수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만, 아직 수요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더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포인트
  - 주간 KT +2.9% 상승. 중주주환원 수익률이 높고 자사주를 취득 중이어서 지난 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통신업 1위 및 지수 상위. 지속적인 관심 필요
  - 2Q 실적 발표 전후로는 LGU+의 26년 자사주 취득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25년 800억원 대비 증가한 900억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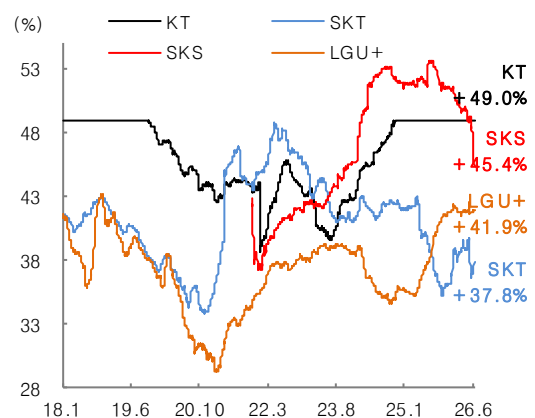
##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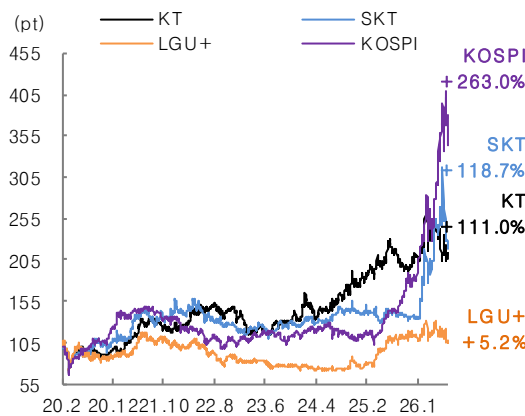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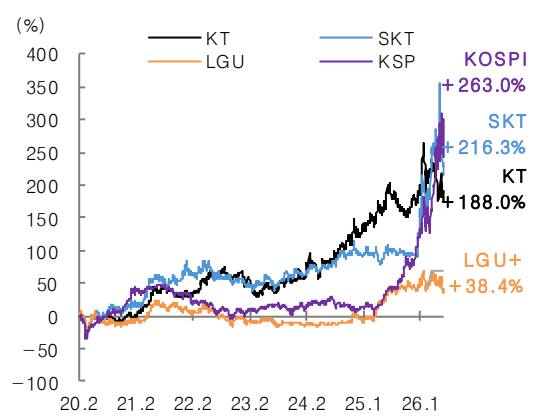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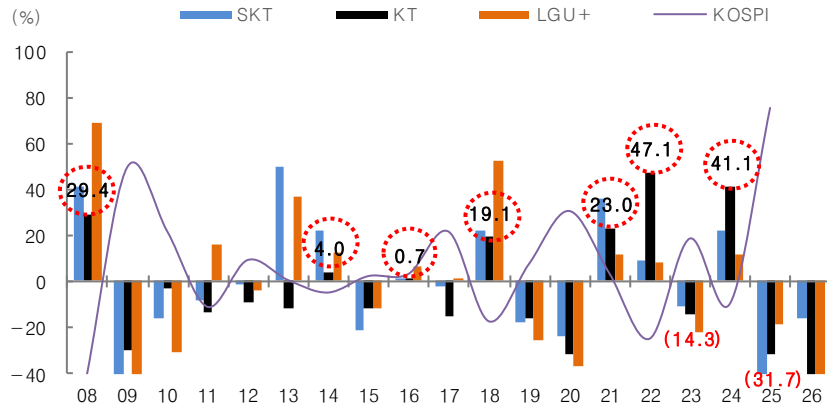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1.5%(-15.9%), KT +2.1%(-46.8%), LGU+ -3.5%(-49.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61.5	2.1	(3.5)	91.9	(15.9)	(46.8)	(49.7)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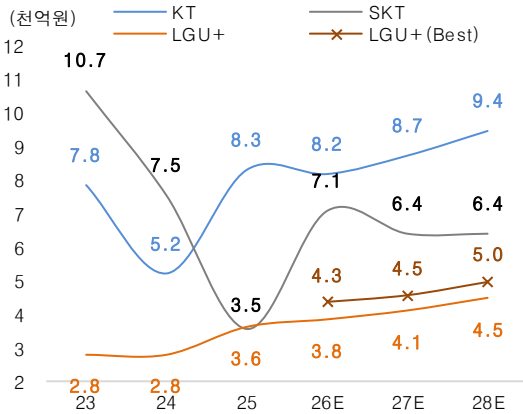
3. 주간 코멘트

5G 업무망 거점, 카이로스-X 중단, SKT AIDC 계획 구체화, 미국 신규 주파수 경매, AI RAN 시장 350억달러 전망

<p><b>KT</b></p> <p>5G 업무망 거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가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5G 업무망 거점형 모델 공개, 경기도청에 첫 적용. 경기도청 데이터센터 핵심장비 구축 기반, 산하 7개 지자체 연계 업무망 운영 체계</li> <li>2. 5G 업무망은 유선 기반 업무 인프라를 무선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기업용 통신 환경 구성. 장소 제약 완화와 스마트워크 지원, 사내망 보안정책 연계 기반 업무 환경</li> <li>3. 기존 기관별 개별 구축 방식 대신 광역 거점 통합 구축 구조 채택. 산하 기관 공동 활용 기반 인프라 효율성 제고와 중복 투자 축소</li> <li>4. 단말부터 중앙 네트워크까지 구간별 트래픽 분리와 제어 기능 적용. 공동 인프라 활용 기반, 기관별 독립 네트워크 운영과 신규 업무망 확장 용이성 확보</li> <li>5. 경기도청 데이터센터에 5G 업무망 핵심장비 GMG 구축 이후 수원·파주·의정부 등 7개 지자체 연계망 개통 진행. 공공 기관 협업과 행정 서비스 운영 기반 네트워크 구조 확대</li> <li>6. KT는 공공 분야 전반으로 거점형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계획 제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지원, 플랫폼 기반 공공 통신 서비스 확대 전략</li> </ol>
<p>경쟁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형 N/W의 개념은, AI 확산에 따라 추진 중인 AI-RAN과 유사한 개념</li> <li>■ 특히, KT가 그동안 강점을 가져온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은 더욱 긍정적</li> </ul>
<p><b>KT</b></p> <p>카이로스-X 중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가 약 1.6조원 규모의 차세대 전사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카이로스-X(KAIROS-X) 추진 중단. 새 경영진 출범 이후 약 1년 만의 사업 재검토와 프로젝트 종료 수순</li> <li>2. 카이로스-X는 고객관리(CRM), 영업, 과금, 회선관리 등 핵심 시스템을 통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LG CNS와 PwC 컨소시엄이 구축 사업 수행</li> <li>3. 사업 목표는 전사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업무 환경 구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강화와 상품 개발, 의사결정 효율 향상, 생성형 AI 활용 기반 마련</li> <li>4. 프로젝트 중단 배경으로는 비용 부담과 투자 효율성 재검토 이후 의사결정 전환 추정. 전임 경영진 추진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재평가 진행</li> <li>5. 업계에서는 단순 전산 교체를 넘어 KT 디지털 전환과 AI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초기 단계에서 중단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 연속성 우려 제기</li> <li>6. KT는 정보보안 리스크 대응과 AX 플랫폼 기업 전략에 맞춘 IT 시스템 현대화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향후 내부 시스템 고도화와 AI 기반 업무 혁신 방향은 별도 방식으로 추진 전망</li> </ol>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단위 규모의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중단되는 것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1년 만에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의미</li> </ul>
<p><b>SKT</b></p> <p>SKT AIDC 계획 구체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KT가 2035년 까지 약 1천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총 15GW 규모 AIDC 구축 계획 공개. AI 연산 인프라 확대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도약 중심 장기 전략</li> <li>2. 1단계로 2029년부터 울산 등 주요 지역에 5GW 규모 AIDC 순차 가동 추진. 이후 시장 수요와 사업 성과를 반영해 2035년까지 10GW 추가 구축, 총 15GW 체계 완성 목표</li> <li>3. 투자 재원은 자체 투자와 전략적 투자자, 글로벌 고객 장기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복합 구조 활용. 전력 확보와 인허가, 핵심 고객 확보 상황에 맞춘 단계별 투자 집행 방식</li> <li>4. 사업 모델은 AI 특화 코로케이션과 GPUaaS 기반 AI 컴퓨팅 클라우드의 두 축으로 구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대상 AI 인프라 제공, GPU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중심 수익 구조</li> <li>5.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BESS), LN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력원 활용 계획. 데이터센터는 전력·서버·냉각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램프업 방식 운영</li> <li>6. SKT는 이번 프로젝트를 한국이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AI 연산을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하는 기반으로 제시. AI 칩·메모리·에너지·네트워크 산업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 중심 AI 생태계 확대 전략</li> </ol>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W급의 AIDC 구축은 글로벌 빅테크와 같은 확실한 수요가 있어야 구축 가능.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수요치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ul>
<p><b>산업</b></p> <p>미국 신규 주파수 경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내년 5G·6G 활용을 위한 C밴드 상위 대역 신규 주파수 경매 추진 계획 공개. 약 5년 만의 상업용 주파수 경매 재개와 차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확대 기반 마련</li> <li>2. 경매 대상은 3.98~4.14GHz 대역으로 총 160MHz 폭 공급. 기존 3.70~4.14GHz 대역과 연속된 440MHz 폭 확보 기반, 5G와 향후 6G 활용 가능성</li> <li>3. 미국 의회는 내년 7월까지 해당 대역에서 최소 100MHz 폭 경매 시행 요구. FCC는 법정 최소 기준을 웃도는 160MHz 공급 가능성 제시</li> <li>4. 주파수 용도는 특정 서비스로 제한하지 않는 유연 활용(flexible-use) 방식 적용. 이동통신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기반 활용</li> <li>5. 경매 낙찰 사업자는 상위 75개 시장에서 30.12월, 나머지 지역에서는 31.7월부터 서비스 개시 가능. 중장기 주파수 활용과 네트워크 투자 연계 구조</li> <li>6. FCC는 연방항공청(FAA), 국가통신정보청(NTIA)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경매 추진 절차 진행 설명. 미국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와 글로벌 6G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li> </ol>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28년말 5G의 기존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7년까지 6G 확장을 염두에 둔 5G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할 예정</li> </ul>
<p><b>산업</b></p> <p>AI RAN 시장 350억달러 전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조사업체 델로그룹이 향후 5년간 AI-RAN 시장 누적 매출을 350억달러(약 48조원) 규모로 전망.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확산과 6G 전환 기반 시장 성장 예상</li> <li>2. AI-RAN은 새로운 시장 창출보다 무선접속망의 성능과 운영 효율 향상 중심 역할 수행 전망. 통신사의 가상화, 지능화, 자동화, 오픈랜(O-RAN) 도입을 가속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li> <li>3. GPU 기반 RAN 시장은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예측 기간 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규모 성장 예상. AI 연산 수요 확대와 GPU 활용 증가 기반 시장 확대</li> <li>4. 초기 AI-RAN 시장은 AI-for-RAN, 단일 목적 구축, 비GPU 아키텍처, 분산형 RAN(D-RAN), 5G 중심 구조 형성 전망.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 중심 도입 흐름</li> <li>5. 기존 RAN 장비업체가 초기 시장 주도 가능성 우세. AI 기능이 기존 기지국 장비와 기지대역(Baseband)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적용되는 사례 확대</li> <li>6. 델로그룹은 2025년 기준 글로벌 RAN 시장의 약 96%를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ZTE, 삼성전자 등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한다고 분석. 이들 기업이 AI-RAN 초기 시장에서도 주도권 유지 전망</li> </ol>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AN이 도입되면, 현재 Cloud 서버 집중형 방식에서 로컬 서버로의 분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Latency가 개선되고 로컬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새로운 BM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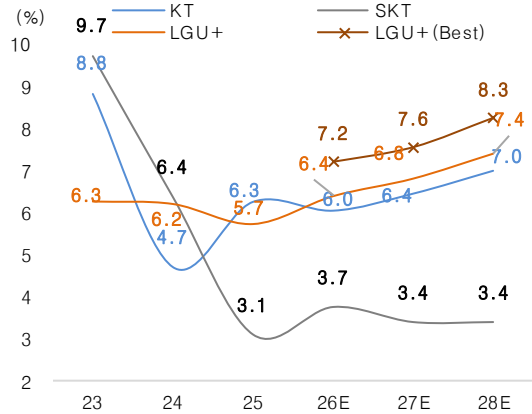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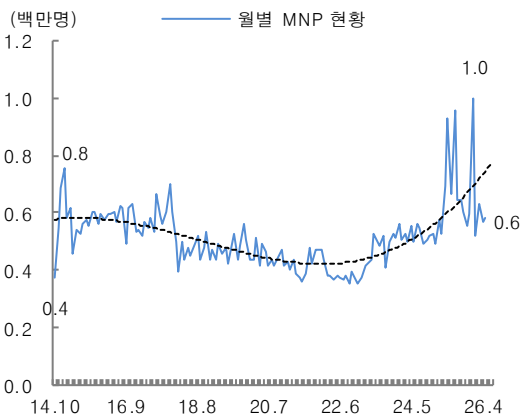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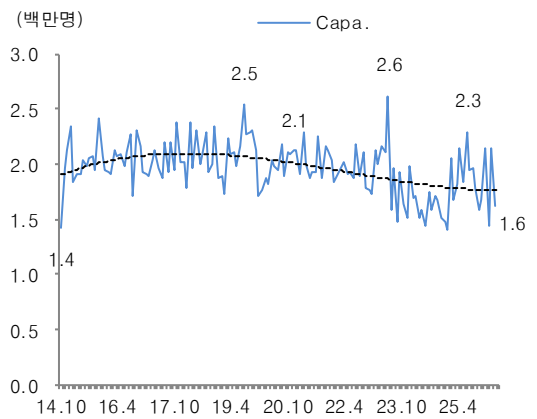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5월) 64만명, +6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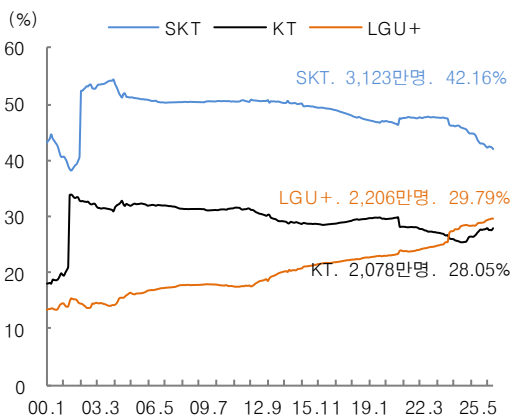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162만명(26.4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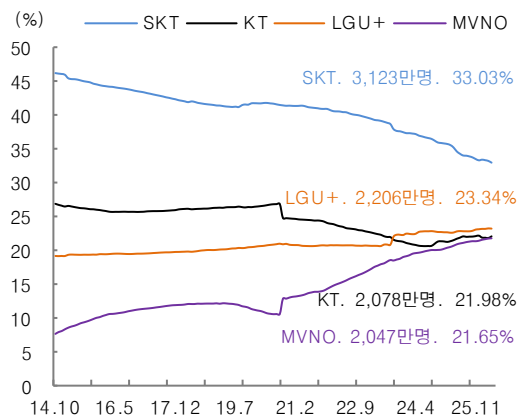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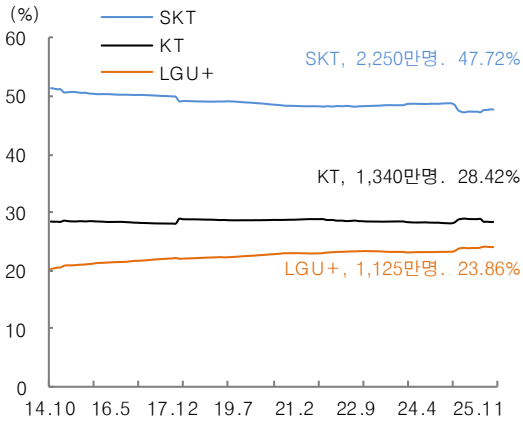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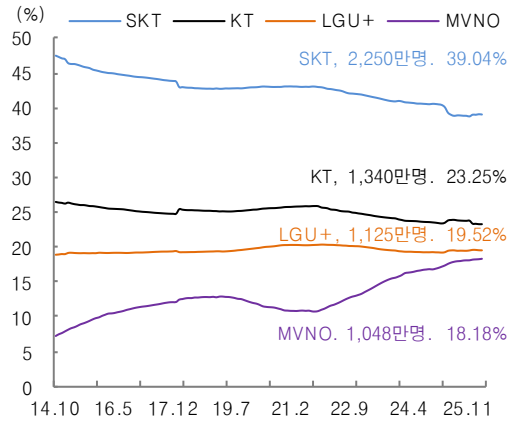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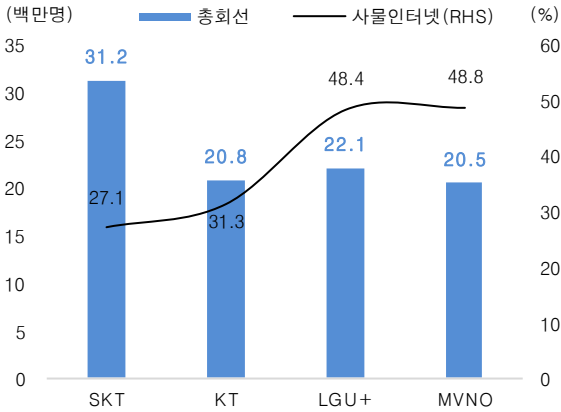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4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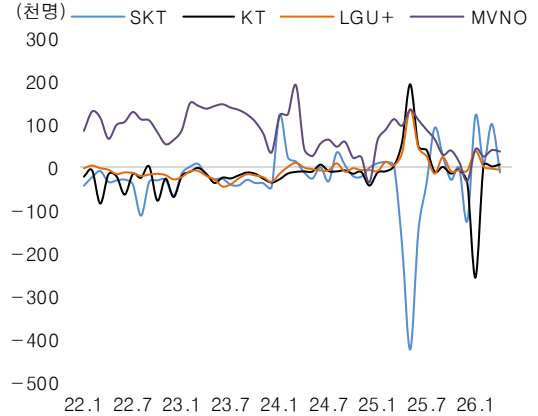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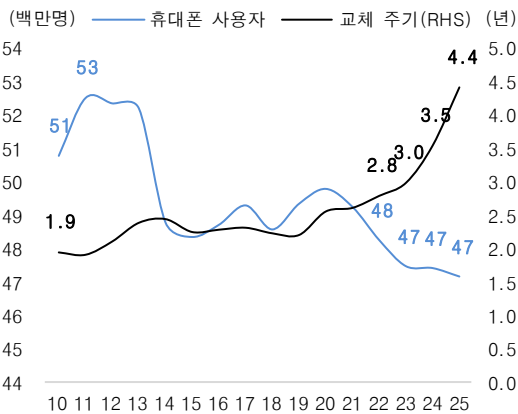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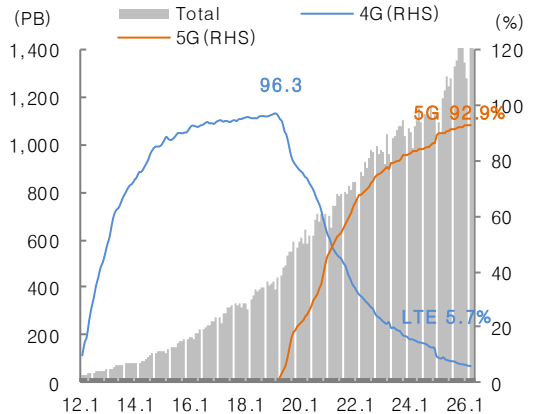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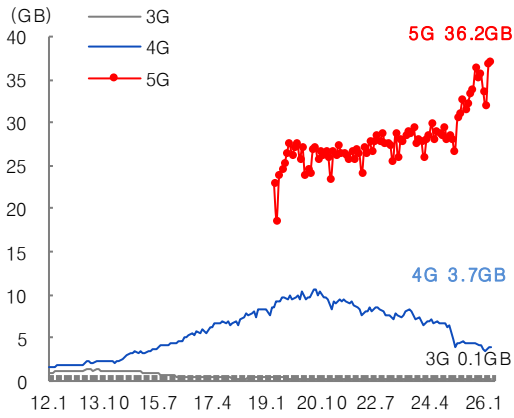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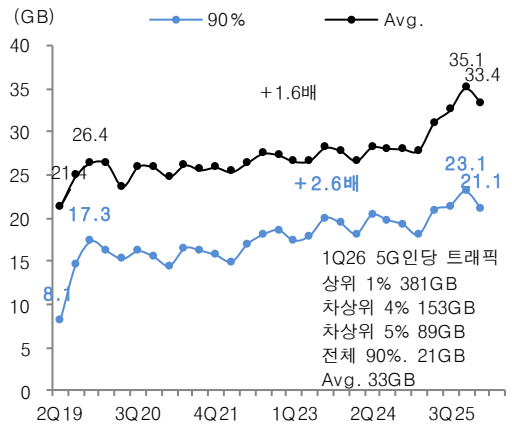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2GB(26.4월), +0.2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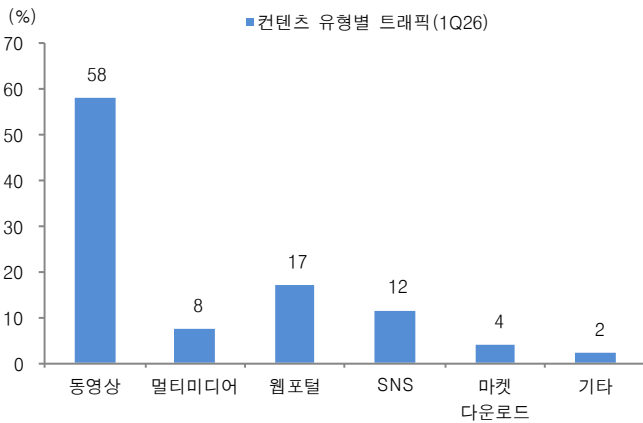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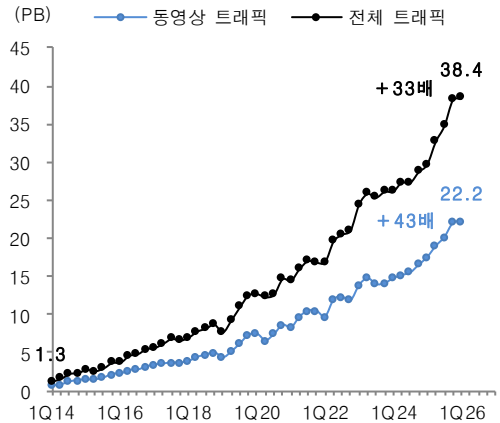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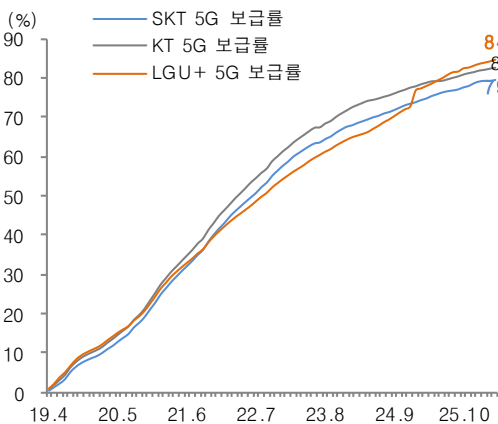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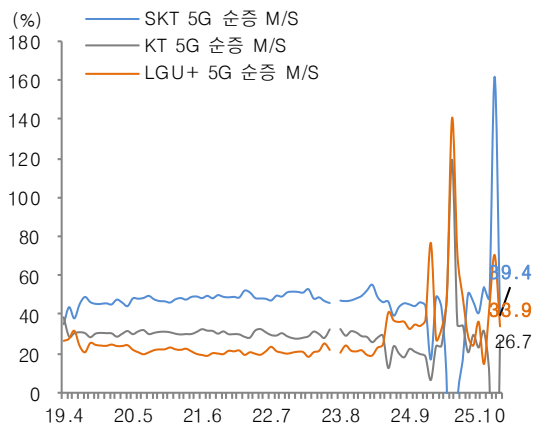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6%(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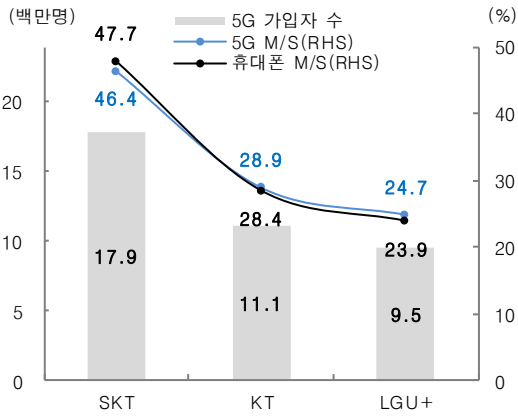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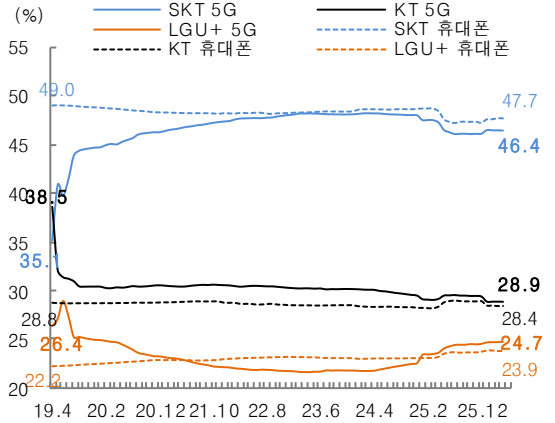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4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